

for you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는 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건강 에너지

2014. 12



경희대학교 의대 · 한의대 · 치대 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여성 질환의 개개인 맞춤 진료 명의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

골반저 질환의 한국형 설문지 개발하여

연구결과 발표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는 골반저 질환의 한국형 설문지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치료 방법에 따른 골반저 질환 환자의 골반저기능장애와 성기능장애, 삶의 질 측면에서 치료 효과를 비교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골반저 질환은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경제적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 유은희 교수는 이러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병인 기전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표지 사진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





for you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는 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건강 에너지

2014. 12



경희대학교 의대 · 한의대 · 치대 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for you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40대 이후
중년을 노린다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

10p

뇌동맥류
파열 12p

뇌경색
재발 15p

뇌졸중
재활 치료 18p

뇌졸중
한방 치료 20p

6p

테마 인터뷰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

22p 치과칼럼
나에게 맞는 칫솔,
어떤 것을 선택할까?

24p

한방칼럼
한방 리프팅
매선요법

자연이 담긴 먹을거리
당근 26p

28p

우리는 한가족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
딜라라 씨

30p

치유의 손길
신경외과
김성민 교수

32p 문화 속 의학
대장암

34p 십이월의 풍경
울릉도

38p 알기 쉬운
초음파 이야기 Ⅲ

39p

병원 소식
고맙습니다. 고객의 소리
진료시간 안내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원칙**

진료실에 찾아온 여성 환자가 여성 질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질환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환자가 자연스럽게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이
유은희 교수의 진료 원칙이다.



유은희 교수는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제 1의 진료 원칙으로 삼는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질환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한편, 진료에 있어서는 완벽을 꾀한다. 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배뇨장애 전문 간호사와 팀을 이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래 클리닉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은 요실금 환자와 골반장기탈출증 환자를 위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 질환으로부터 환자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를 지켜내는

산부인과 교수

유은희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원칙

유은희 교수는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오전 진료를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모든 환자의 얘기를 꼼꼼하게 들어주기에 진료시간이 길어지기 십상이다. 유은희 교수를 아는 의료진과 지인들은 요실금 등 산부인과 관련 질병 치료에 유은희 교수를 적극 추천한다. 골반장기탈출증 등으로 고통 받으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던 환자와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정확히 치료해주시는 지인들은 자연스럽게 유은희 교수를 믿고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완벽한 진료 원칙에

환자들의 애정 어린 원망을 듣기도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고 각 환자에 맞는 진료를 진행하니,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어도 상담을 원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한다. 진심과 정성이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에 있어서는 작은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절차대로, 원칙대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꼭 실행하기 때문에 종종 ‘교수님은 항상 철저하고 완벽해서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라는 애정 어린 원망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유은희 교수 항상 환자들의 믿음과 기대에 열정적으로 부응한다. 학회 같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휴일에도 병원에 나와 병실환자를 방문해 면담을 하는 등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환자의 경과 상태나 상담의 필요에 따라 한밤중에도 주저 없이 병원으로 뛰어오는 열정과 급격한 병세 변화에 주말에도 회진을 하는 성실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유은희 교수를 만나 여성 질환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연령대별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청소년기, 미혼여성, 임산부, 중년, 노년 여성의 건강을 다루는 ‘여성의학과’입니다. 그러므로 생식



건강과 관련된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미혼, 노령 여부와 상관없이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피임, 임신 전 몸만들기, 폐경기 건강상담, 노령여성의 골반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전문의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흔히 밑이 빠진다고 하는 것으로 골반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궁과 방광, 직장 등의 골반장기의 지지조직이 약해져 빠져나오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밑이 빠지거나 목직해지는 불편감으로 시작해서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는 경우 더 심해집니다. 더 진행되면 질 쪽으로 만져지는 목직한 덩이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들락날락거리다가 심해지면 평소에도 항상 빠져 나와 있게 됩니다.

자궁뿐만 아니라 방광 및 직장도 빠져 나오게 됨에 따라

배뇨장애, 요실금, 배변장애, 변실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빠져나와있는 자궁질조직은 속옷과 마찰을 일으켜 상처가 나거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반장기탈출증은 요실금, 변실금과 함께 골반저질환으로 총칭되며 이러한 골반저 질환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골반지지구조물의 약화와 손상이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유전적으로 골반저 근육이 취약하면 갱년기 전후의 호르몬 변화, 고령노화도 위험요인이 됩니다. 또 비만, 무거운 것을 계속 들어야하는 직업, 쭈그리고 앉아 일을 많이 하거나, 폐 질환으로 만성기침이 있는 경우, 변비가 심한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골반장기탈출증은 창피한 질환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골반장기탈출증은 원인이 다양한 병인만큼이나 뚜렷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생활습관에서 비만교정,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피하고 기구를 이용해 옮기기, 쭈그리고 앉지 말고

의자에 앉아 일하기, 변비나 만성기침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골반괄약근 케겔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자궁 또는 질이 빠져 나와 배우자에게 또는 자손들에게 창피해서 또 수술이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하고 쉬쉬 숨겨오다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 후 너무나 고마워하며 의술이 대단하다고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늘 골반장기탈출증은 생명에 관계되는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치료 및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마취 방법도 발달되어 있어 고령 여성 및 내과적인 합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대부분 수술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방법입니다. 골반장기탈출증은 골반 장기를 지지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결손이 생겨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봉합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주된 치료이며 이것을 ‘골반재건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질을 막아서 빠지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법인 ‘질 폐쇄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재발도 매우 적으나 질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므로 주로 아주 고령이거나 전신상태가 쇠약한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폐사리라고 하는 기구를 질 내에 착용하여 골반장기가 탈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고 수술과 달리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래 착용하게 되면 기구에 의한 염증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tip

자궁근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 생리통이 심할 때
- 생리량이 많을 때
- 소변이 자주 마려울 때
- 아랫배에 무엇인가가 만져질 때
- 아랫배가 묵직하고 밀이 빠지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이 지속될 때
- 난임 및 유산이 있을 때



여든이 넘는 연세에 유은희 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환자의 퇴원 날. 환자의 가족들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취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취득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파운데이션, Urogynecology and Pelvic Floor Medicine(비뇨부인과학) 연수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 TFT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
대한비뇨부인과학회 감사 및 학술위원
대한폐경학회 기획위원장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연구위원장
골다공증학회 보험위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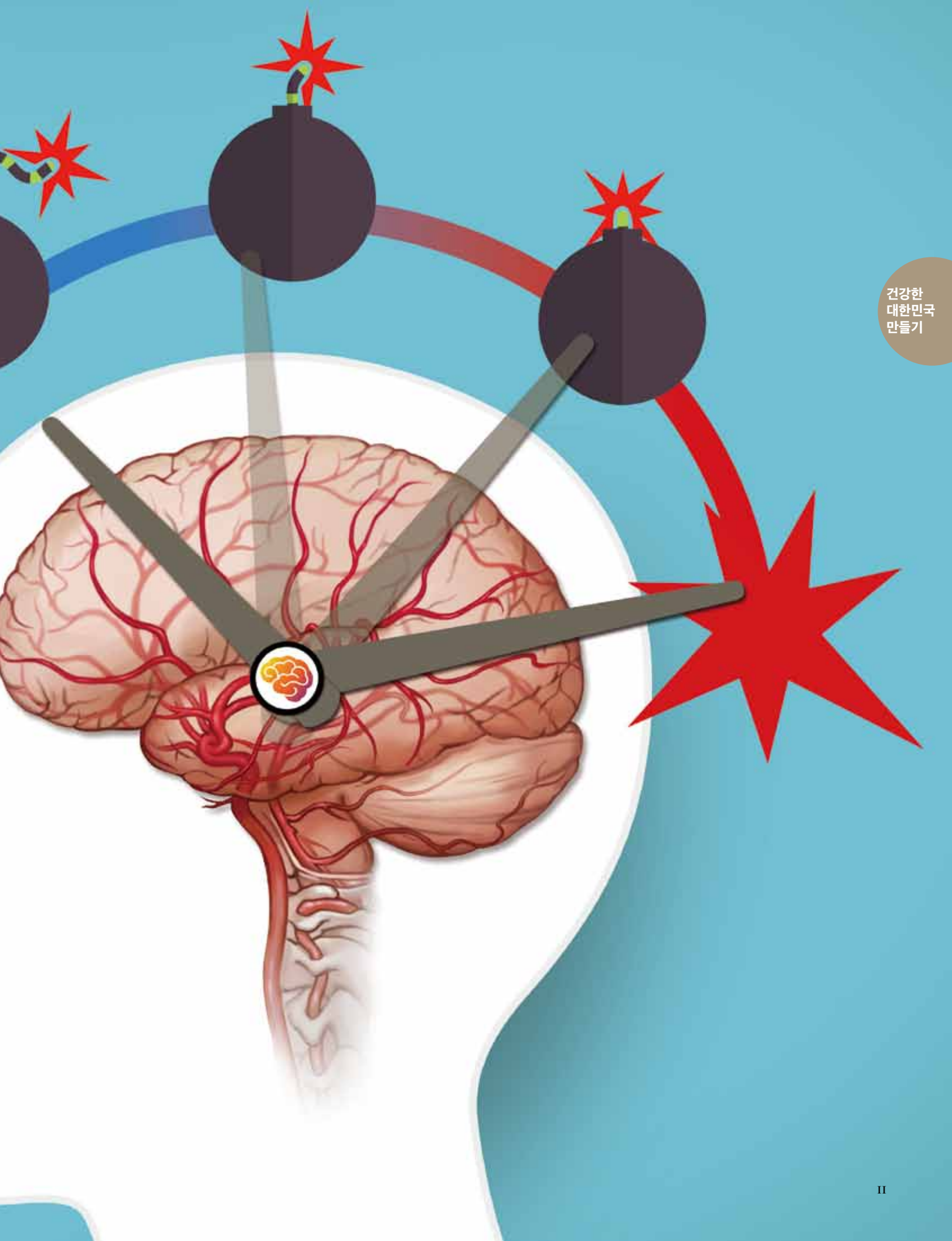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부인과 양성종양, 복강경수술, 갱년기·골다공증
진료시간 오전(월, 화, 금)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111



40대 이후 중년을 노린다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



정기검진, 생활습관 관리, 금연, 금주 등 건강관리 신경 써야





뇌동맥류 파열 이후 전문적인 응급치료가 생명을 구한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요즘 어르신들의 건강 화두는 단연 뇌졸중(腦卒中)이다. 뇌졸중이란 뇌혈관 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여러 증세들을 가리키는 말로 한의학에서는 중풍(中風, 큰 바람이 적중함)이라 한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뇌졸중으로는 뇌경색(腦硬塞,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과 뇌출혈(腦出血, 주로 고혈압에 의해 뇌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이 있다.

30대 후반~40대에서 지주막하출혈 증가 추세

뇌경색은 뇌출혈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발생 빈도를 보인다. 뇌출혈과 비슷하지만 뇌동맥파리(腦動脈瘤, 뇌동맥류)가 부풀어 올라 어느 순간 파열되어 발생하는 뇌지주막(腦蜘蛛膜, 뇌동맥을 싸고 있는 막)하 출혈은 초기 파리파열 시 3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또한 병원 도착 후 치료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20~30%의 추가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무서운 질환으로 50대나 60대 이후 노년층에 호발 한다.

그러나 최근 50~60대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이 적절히 조절되고 △금연, 금주, 체중조절이 일상생활화 됐으며 △CT나 MRI 등을 이용해 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검사가 많이 시행되어 뇌동맥파리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기 전에 발견되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건강에 소홀하기 쉽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갖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30대 후반, 40대에서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증가하는 추세가 감지된다. 한창 열정적으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미래를 위해 알찬 준비를 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시점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뇌동맥류 파열은 앞서 언급된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더라도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치료 예후가 극히 불량할 수 있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환자 가족의 짐이 되거나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수술 전 환자 상태에 따라 예후가 달라져

뇌동맥류의 파열은 뇌압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원인(고혈압, 운동, 기침, 물건 들기, 배변, 부부생활 등)들에



〈그림 1〉 개두술(동맥류 경부결찰술)



〈그림 2〉 뇌혈관내 중재술(코일색전술)

의해 발생된다. 증세는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마비, 의식소실이나 호흡마비까지 다양하다. 두통은 보통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구토를 자주 동반한다.

치료법은 개두술(머리뼈를 열고 시행하는 뇌수술)을 통한 동맥류 경부결찰술(그림 1)과 백금코일을 이용해 파리 내부를 채우는 코일색전술(그림 2)이 있다.

치료 후 예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치료 전 환자의 상태다. 수술 전 의식상태가 좋고 장애가 없더라도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동맥류가 반복해서 출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의 사망률은 초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일색전술 뇌동맥류 치료 연간 70례 이상 시행

뇌동맥류 치료 후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예방적 치료법이다. 이 경우 95%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더불어 최근 뇌수술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큰 환자

에게는 개두술 없이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 뇌동맥에 가느다란 도관을 넣고 뇌동맥류 내부를 백금등으로 만들어진 특수 코일로 채워 막는 동맥류 코일색전술(뇌혈관내 중재술)이 시행되어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향후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

필자는 2006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개원한 이래 신경외과에서 현재까지 1,000례 이상의 뇌동맥류 치료가 시행했다. 이중 2/3 정도가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였다. 파열된 동맥류는 연령대별로 40대 이하가 33.4%, 50대 33.2%, 60대 17.0%, 70대 이상 16.4%로 40~50대가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10년 전 50~60대 이후 연령군이 전체 동맥류 파열의 2/3를 차지하던 경향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년층에서 이 질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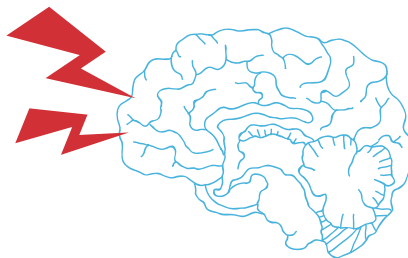
tip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 극심한 두통이나 구토
- 반신마비
- 언어장애
- 갑작스런 보행장애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주 증상

-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구토 동반)
- 목이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듦
- 진통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의학의 발전과 함께 치료법도 다양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개두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아니더라도 저 침습적 뇌혈관내 중재술을 통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효과적으로 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뇌혈관내중재술 클리닉에서는 코일색전술을 통한 뇌동맥류 치료가 연간 70례 이상 시술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치료 결과를 얻고 있다. 수술 역시 첨단 수술현미경의 발달은 물론 뇌항법장치(Navigation system) 수술 및 뇌내시경(Endoscopy) 수술 도입, 뇌모니터링 등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약속할 수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새삼 떠오르는 계절이 돌아왔다. 중년의 불청객, 머릿속의 시한 폭탄, 뇌동맥류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한 번쯤 떠올리는 것, 다시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tip

뇌졸중을 유발하는 고지혈증,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무조건 금연한다.
- 정상체중을 유지한다.
-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한다.
- 튀김 등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인다.
- 술은 하루 1~2잔 이하로 조절한다.
- 20세 이상은 5년에 1회, 45세 이상은 매년 검진을 받는다.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졸중(중풍), 급성기 두통, 경동맥내막절제술, 뇌혈관내 중재술(뇌동맥류 코일색전, 스텐트), 뇌내시경 수술(종양/수두증)

진료시간 오전(화) 오후(화(신환), 목)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156



뇌경색은 재발할 수 있다

뇌경색은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뇌경색을 앓으면 평생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이다. 아직까지는 뇌경색 재발의 위험을 0%로 만드는 방법은 없으나, 약물요법, 생활습관 조절 등으로 뇌경색 재발의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다.



뇌경색 재발은 후유장애가 심할 가능성이 높아

뇌경색이 재발할 때는 기존의 증상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다. 그 증상은 기존의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과 같은 종류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증상일 수도 있다. 한쪽 팔다리의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한 쪽을 못 보는 등의 증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다. 이런 경우 뇌경색의 재발을 의심하고 바로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뇌경색이 재발하면 증상의 정도나 발생 시기, 병원 내원 시각, 복용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혈전 용해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발성 뇌경색의 대부분에서 첫 뇌경색 발생 시보다 후유장애가 조금 더 심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뇌경색의 재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뇌경색 재발을 줄이려면 약물 복용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음식 섭취를 비롯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금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

우선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이며,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 조절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상 생활에서는 조리할 때나 식사할 때 소금을 쓰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짭짤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무염간장이나 대용소금을 사용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은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음식이 뜨거운 상태에서 간을 맞추면 소금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한다.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먹고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제거해야 한다. 튀김보다는 구이, 찜 등의 요리법을 이용하고, 동물성 기름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 또한 과식은 피하고 적절한 열량을 여러 영양소가 포함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예방과 발생 이후 후유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 좋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권한다.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추운 날 이른 아침 운동은 삼가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면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당뇨병이 있으면 매일 같은 시각에 식후 30분정도 지난 후 시작하여 30분 내지 1시간가량 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운동 강도는 운동하는 동안 옆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이며,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3~4회는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적이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흡연과 관련된 것을 주변에서 제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점차 줄이기보다 단번에 끊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tip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경색 재발을 의심하세요!



- 한 쪽 얼굴, 팔, 다리 등에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 한 쪽 시력이 나빠지거나 시야의 한 부분이 잘 안 보인다.
- 어지럽거나 한 쪽으로 몸이 쏠린다.
-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의 두통이 생긴다.
- 이유 없이 자꾸 구토를 한다.
- 언어 장애가 생긴다.
- 몸의 한 쪽이 마비된다.

그러나 흡연의 중독, 의존성 때문에 담배를 끊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소량의 음주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으나, 한 잔을 넘는 양의 술은 해로우며 평소 과음을 했다면 술을 끊는 것이 좋다.

약물 복용과 중단은 꼭 의사와 상의해야

규칙적인 약물 복용은 매우 중요하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동반된 위험요인의 적절한 관리 뿐 아니라,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의 복용이 뇌경색의 재발 위험을 낮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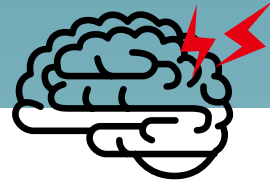
시술이나 수술로 인해 약물을 끊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뇌경색으로 진료중인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약물을 끊지 않고 시행하거나, 약물을 끊고 일시적으로 주사제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예방약 복용을 시작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뇌경색은 재발의 위험이 있는 병이며, 뇌경색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 뇌경색을 앓을 위험보다, 한 번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뇌경색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

또한 뇌경색이 재발하게 되면 첫 번째 뇌경색에 비해 증상의 회복이 더디고 후유장애가 더 심하게 남을 위험이 높으며,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더 높다. 따라서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습관 조절 및 규칙적인 약물 복용은 아주 중요하다.

신경과 최혜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졸중, 뇌졸중 예방, 두통, 어지럼증
진료시간 오전(월, 화, 목(2,4), 토(교대)) 오후(목, 금)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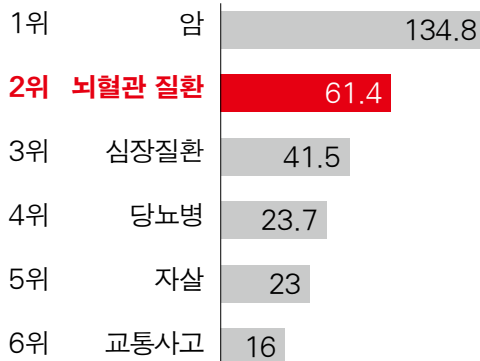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뇌졸중 정보

뇌졸중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건강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사망원인과 사망률

2006년, 10만 명당 사망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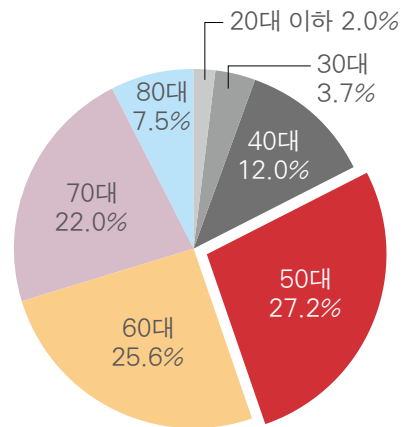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8년)



뇌동맥류 환자 추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뇌동맥류 환자 6년 평균 겨울철(12~2월)에 5만8738명으로 가장 많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뇌졸중 갑자기 5 FIVE 캠페인



뇌졸중 삼진아웃

“얼굴, 팔다리, 언어”마비 즉시 병원으로



One Strike!

한 쪽 얼굴에 마비가 오거나



Two Strike!!

한 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Three Strike!!!

말이 어눌하면 즉시 병원으로!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세요.



뇌졸중 치료의 완벽한 마무리, 재활 치료

뇌졸중 치료 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팔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해 어깨 등의 관절이 굳게 된다. 이로 인해 통증이 생기면 운동 기능의 회복도 더뎠다. 악순환을 겪게 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뇌졸중 재활치료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전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환자와 환자 가족과 함께 토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가족회의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물리 치료를 시행한다.



뇌경색이 발생한 40대 남성의 환자 사례



40대 후반, 다른 병력이 없던 남성이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으로 몸이 기울는 느낌이 있어 응급실을 찾았다. 평소 등산을 자주 하면서 건강을 자부했던 남자는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소뇌에 경색이 생겼다고 들었다. 소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인 몸의 균형감각이 경색으로 인해 소실된 것이다. 뇌경색 발생 이유로 평소의 흡연 습관과 입원 후 발견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있었다.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감 등을 느꼈으나 재활치료실에서 균형감각, 미세한 손동작을 조절하는 운동을 지속하면서 위의 증상들은 호전되었다. 걸을 때,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으로 혼자 걷기가 두려웠으나, 점차 회복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혼자 안정적으로 걷게 되었다. 컴퓨터 자판을 치는 속도도 증가하여 곧바로 직업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이른 중년 남자에게 뇌경색이 경미하게 발생했던 사례로 뇌졸중이 발병하고 2개월 내에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남기며 후천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뇌졸중은 예방에서 재활 치료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뇌졸중 치료 단계와 각 단계에서 재활 치료의 목표

급성기는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응급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급성기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온 뒤 24시간 내에 재활 치료 필요성을 평가한다(72시간 내에 재활 치료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권고됨).

급성기 재활 치료는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기 전, 마비된 팔, 다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관절구축 등을 예방하고, 바른 자세와 관절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

재활기는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재활의학과로 옮겨거나, 재활병원으로 전원되면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과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안정된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환자 상태(운동능력, 감각, 언어, 인지, 통증, 연령)를 평가하여 운동 치료, 작업 치료, 삼킴 치료,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할 지, 각 치료 별 강도와 횟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뇌손상에 의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유지기는 입원한 상태의 재활 치료가 끝나고 사회로 복귀한 후를 말하며, 이 때에도 재활 치료의 필요성은 계속 된다. 이 단계에서는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 증진이 필요하며 대인관계 유지와 사회 참여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와 재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는 뇌손상의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신체적 기능(마비, 균형감각 포함)뿐 아니라 삼킴, 인지, 언어, 정신적 기능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신체적 장애는 대뇌 반구의 손상 시 나타나는 한 쪽 마비가 가장 흔한 형태다. 뇌간이나 소뇌의 손상은 운동 조절 능력을 소실하거나 삼킴 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체적 장애에 따라 적절한 운동 치료와 작업 치료 및 전기자극 치료와 뇌자극 치료, 약물 투여 등이 시행된다. 근래에는 운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로봇이나

가상현실 등도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장애에 동반되는 경직,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필요하다. 인지 기능의 장애는 주의력, 기억력, 시지각능력 등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 재활 치료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뇌졸중 후 근력 회복은 3개월 또는 6개월 내, 언어 회복은 1년 내에 이뤄지므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tip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세요!

- 팔다리 마비
- 팔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저림
- 인지 기능(언어 기능, 지각, 기억력, 의욕, 판단력, 주의, 집중력) 저하
- 음식물 삼킴 장애(음식물 섭취 시 기침을 자주 하거나 사레가 드는 경우)
- 균형이 떨어지거나 사지와 몸통 떨림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재활의학과 이승아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졸중, 통증, 언어/인지 재활, 신경근골격 초음파, 손발저림, 삼킴, 치매, 희귀근육 질환, 소아재활, 족부/보조기 클리닉,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시간 오전(화, 토(2)) 오후(월, 화, 금)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156



몸의 불균형을 맞춰주는 뇌졸중의 한방 치료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뇌(腦)가 갑자기(卒) 맞았다(中)로 해석된다. 옛날부터 중풍(中風)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자연의 여러 가지 바람 중에서도 갑자기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뿌리가 뽑히는 것을 인체에 비유한 것이다.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中)은 적중한다, 맞았다는 뜻이고, 풍(風)은 바람이라는 뜻이 있다. ‘바람에 적중되었다’, ‘바람에 맞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중풍에는 넓은 의미도 있고 좁은 의미도 있는데, 좁은 의미의 중풍이 뇌졸중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풍은 어떻게 생기나요?

한방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외부적인 원인, 자신의 내부적인 원인, 내·외적인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원인으로 나눈다. 외부적인 원인은 감기처럼 사계절의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염성 질환 같이 몸밖의 기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내부적인 원인이란 감정의 변화 또는 스트레스가 지나치거나 과도해지면 인체 오장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려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방에서는 대부분의 병이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으로 보는데 고혈압, 당뇨, 심장병, 비만, 흡연 등 위험인자가 과로, 스트레스 등과 겹치면 몸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풍이 발생하게 된다. 즉 타고난 원인을 가진 사람이 심한 찬 기운을 만나거나(바람 風),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나친 긴장, 오랫동안 참은 스트레스 또는 화를 억제하지 못한 경우(화열 火熱), 기력이 쇠약하여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경우(기허 氣虛), 인체의 수액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습담 濕

痰),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어혈 瘀血)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발병 시기에 따라 치료 목표와 치료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초기에는 머리와 몸 전체의 기와 혈액을 소통시켜 중풍의 진행이나 악화를 막아준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래가 많아지고 호흡이 불편하거나 사지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소풍(疎風), 청열(淸熱), 치담(治痰), 사하(瀉下) 등의 치법으로 빠른 안정을 도모하여 추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한다.

급성기가 지나면 빠른 회복과 개개인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약을 먹고 병의 위험인자들로 알려진 질환을 관리해도 중풍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다. 이는 몸의 근본적 불균형 상태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한방 치료의 장점이 있다. 회복기에는 기혈을 보하거나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을 위주로 하게 된다.

중풍 환자에게 침 치료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발병 초기는 물론 운동장애, 언어장애, 연하장애, 안면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된다. 또 두통, 어지럼증 등 동반되는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중풍이 발생한지 1개월 이내의 환자들에게 매일 또는 주 3회 이상 침 치료를 하면 증상이 효과적으로 회복된다. 침 치료 역시 한약 치료와 마찬가지로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식으로 놓게 된다. 마비된 팔다리, 통증 등이 나타나는 부위의 해당 혈자리에 침을 놓기도 하고, 증상이 있는 반대쪽에 침을 놓기도 하는 등 다양한 침법이 있다.

침 치료는 급성기에는 신경세포의 손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회복기에는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 주고, 뇌경색으로 파괴된 뇌세포 주변의 살아남은 뇌세포가 빠른 속도로 새로운 회로망을 구축해 죽은 뇌세포의 기능을 대신하는 능력인 뇌 가소성을 촉진시켜 운동 기능이나 언어기능 등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

한방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중풍 환자에게 한방 치료를 시행하면 운동장애, 언어장애, 연하장애 등 중풍으로 인하여 저하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속되는 두통, 어지럼, 쓰시고 아픈 통증, 저림, 불면, 불안, 변비 등 동반되는 다양한 증상을 환자 맞춤형 처방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비된 팔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바늘로 찌르는 것같이 심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환자들에게 기혈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고 쌍화탕을 주처방으로 투여하여 5일 이내에 50%이상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중풍이 발생하면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복부에 뜸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되며, 장기간 대변을 보지 못하면 대승기탕, 자유통, 소풍순기원 등의 한약처방이 효과적이다.

중풍이 발생한 후 불안해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입이 말라 찬 물을 마시고 싶어 하거나 대변을 원활하게 보지 못하는 환자들은 수면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화열(火熱)을 내려주는 치법으로 치료를 하면 환자가 점차 안정되어 근본적으로 불면을 개선할 수 있다.

tip



중풍의 예방을 위한 약물 '청혈단'

탁해진 피(血)를 맑게 한다(淸)는 뜻,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에서
개발한 한방 신약

뇌신경 보호효과, 항산화작용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동맥경화 예방

중풍 예방(중풍 재발 억제 효과)

중풍(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는 환자들이
2년 이상 청혈단을 복용한 결과,
청혈단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중풍 재발율이 1/4로 감소.
캡슐 형태로 보관 및 복용이 간편함.
은행잎 성분을 추가한 행엽청혈단,
어혈 치료 약물을 추가한 거풍청혈단 등이 있음.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한방내과 조승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중풍예방, 중풍, 두통, 어지럼증, 파킨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호흡기질환(감기, 기침, 천식), 만성통증

진료시간 오전(월, 목, 토(1,3,5)) 오후(화, 수, 금)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156



나에게 맞는 칫솔, 어떤 것을 선택할까?

구강 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은 대부분 치아 표면과 잇몸에 쌓이는 음식물 찌꺼기(치태)를 제대로 닦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은 '제대로 된 양치질'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올바른 칫솔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루 세 번, 3분씩 꼬박꼬박 이를 닦는데 왜 잇몸이 안 좋을까?"하는 사람은 칫솔질 습관과 방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횟수와 시간을 채우기 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칫솔

칫솔 선택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 칫솔모가 강해야 잘 닦이며, 치아 표면을 박박 문질러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칫솔모 강도 자체가 치아 표면 손상에 어떤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수평방향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듯한 칫솔질 방법과 마모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치약이라는 요소가 합쳐지면, 잇몸이 내려가는 치은 퇴축 및 치아의 목 부위가 빠지는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힘주어 강하게 닦기보다 위아래 방향으로 꼼꼼히 닦는 등의 적절한 칫솔질 방법으로도 효과적인 치태 제거가 가능하다.

전동 칫솔

열심히 노력해도 매번 칫솔질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숙한 칫솔질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강위생이 불량하거나, 어린이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교정 장치를 부착한 환자 등 치태 조절에 제약이 있는 경우 전동칫솔을 통해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첨단칫솔(end-tuft brush)

첨단칫솔은 일반 칫솔로 닦기 어려운 부위를 관리할 때 유용하다. 특히 치열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치아의 뒷면

이나, 임플란트 주위를 닦을 때 편하기 때문에 일반 칫솔을 이용한 칫솔질 후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첨단칫솔(end-tuft brush)

제일 마지막 치아의 뒷면을 닦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첨단칫솔

치실, 치간칫솔

칫솔 사용만으로는 치간부(치아 사이)에 쌓이는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조절할 수 없으며, 이는 전동칫솔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치아의 옆면에 충치가 잘 생기고, 치주 질환은 치간부 잇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치실 혹은 치간칫솔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치간부 치태를 제거해야만 하며, 이는 칫솔질과 함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특히 치간부에 공간이 생겼거나,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근이 노출된 경우, 치아 배열 상태, 보철물 혹은 교정 장치 등이 있는 경우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양한 직경의 치간칫솔이 존재하는데, 치간부 공간보다 약간 큰 크기의 치간칫솔을 선택해야 가볍게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통해 옆면의 치태가 닦일 수 있다. 치간칫솔은 치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 이유는 치근 표면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약을 동반할 경우 마모가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크기의 치간칫솔

치간칫솔을 치아 사이 공간에 수평으로 삽입한 모습

tip

치간 청결기구의 사용과 선택

치아 사이 공간은 형태도 크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경우에 맞는 보조기구의 선택이 필요하다.

■ 치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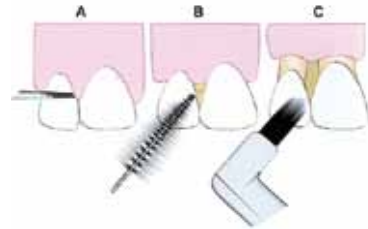
잇몸의 퇴축이 없고 공간도 뽀뽀한 경우

■ 치간칫솔(B)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생긴 경우

■ 단일 속 칫솔(single-tuft brush)(C)

퇴축 정도가 심해 치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잇몸이 거의 없고, 공간이 매우 큰 경우



치주과 홍지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치주치료, 치과임플란트, 치주성형술, 치조골이식

진료시간

오전(월, 화, 수, 목, 토(2, 4)) 오후(화, 수, 목, 금)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515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치과
칼럼

한방 리프팅 매선요법



부작용은 적게, 효과는 크게!

우리나라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에 발간된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에서의 성형수술 및 미용수술의 총 수술 건수는 약 65만 건으로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에 이어 7위였으며, 인구 1만 명당 수술 건수는 131건으로 1위였다. 수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수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한방 미용수술의 매선요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매선침법으로 피부 탄력 개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의 과정은 신체의 모든 기관에서 일어나는데 얼굴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개인적-인종적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대 중반 이후부터 얼굴의 노화가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성과 견고함이 저하되기 때문에 볼과 턱의 지방이 얼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의 탄력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조직의 재배치를 흔히 ‘처짐’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처짐’은 한방의 매선요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매선침법(埋線鍼法)은 한방 의료행위 중의 특수약자술 중의 하나로 특별히 고안된 침을 이용하여 흡습성 봉합사를 인체 내에 매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매입된 실이 가지는 물리적인 장력과 삽입된 실 주위로 발생하는 조직 반응을 이용하여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연부조직을 거상하는 한방치료법이다. 매선요법에 사용되는 봉합사는 인체 내에서 수개월이 지나면서 녹게 되면서 주위 지방을 분해하고 콜라겐을 생성한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술법

매선요법은 보통 40대 이상의 여성 중에서 안면부의 처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시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시술은 대부분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시술 후 멍이 들 수 있으나 다른 보형물이나 지방 삽입 등의 시술과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전한 시술방법이라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술법이다. 아름답고 젊어 보이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욕구 중의 하나로 이에 부응하여 현대 미용성형 시술은 꾸준히 발달해오고 있다.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술 혹은 수술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만일 큰 부작용의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면 한방미용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에서는 최근 ‘미용침과 매선침’이라는 임상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한의 미용수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 및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소 침습적 시술 10년간 7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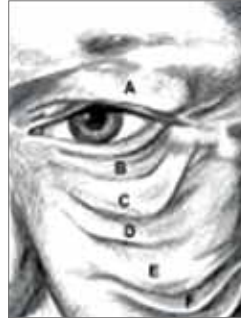
최근 들어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 중에서 수술적 또는 침습적 시술(절개)에 비하여 비수술적, 최소 침습적 시술(비절개)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7년과 2010년도의 미국의 성형시장을 분석한 미국미용성형외과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과 수술이 동반된 성형 시술은 10년간 172%가 증가하였지만 비수술적 성형시술은 같은 기간 동안 709%가 증가했다. 이는 성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수술 후 소요되는 장기간의 회복기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을 피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욕구로 설명될 수 있다.

tip

매선요법 효능

- 팔자주름 개선
- 가름한 턱선 회복
- 중간얼굴 처짐과 꺼짐 개선
- 보형물삽입 없이 얼굴주름과 탄력개선



노화로 발생하는
얼굴의 처짐 현상



매선요법에 사용되는
매선침



“

피부의 탄력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조직의 재배치를 흔히
‘처짐’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처짐’은 한방의
매선요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

한방안ibi인후피부과 윤영희 교수

전문진료분야 여드름, 탈모, 피부미용치료, 얼굴 미용침, 한방성형
진료시간 오전(월, 수, 목, 토(1, 2, 4)), 오후(화, 목, 금)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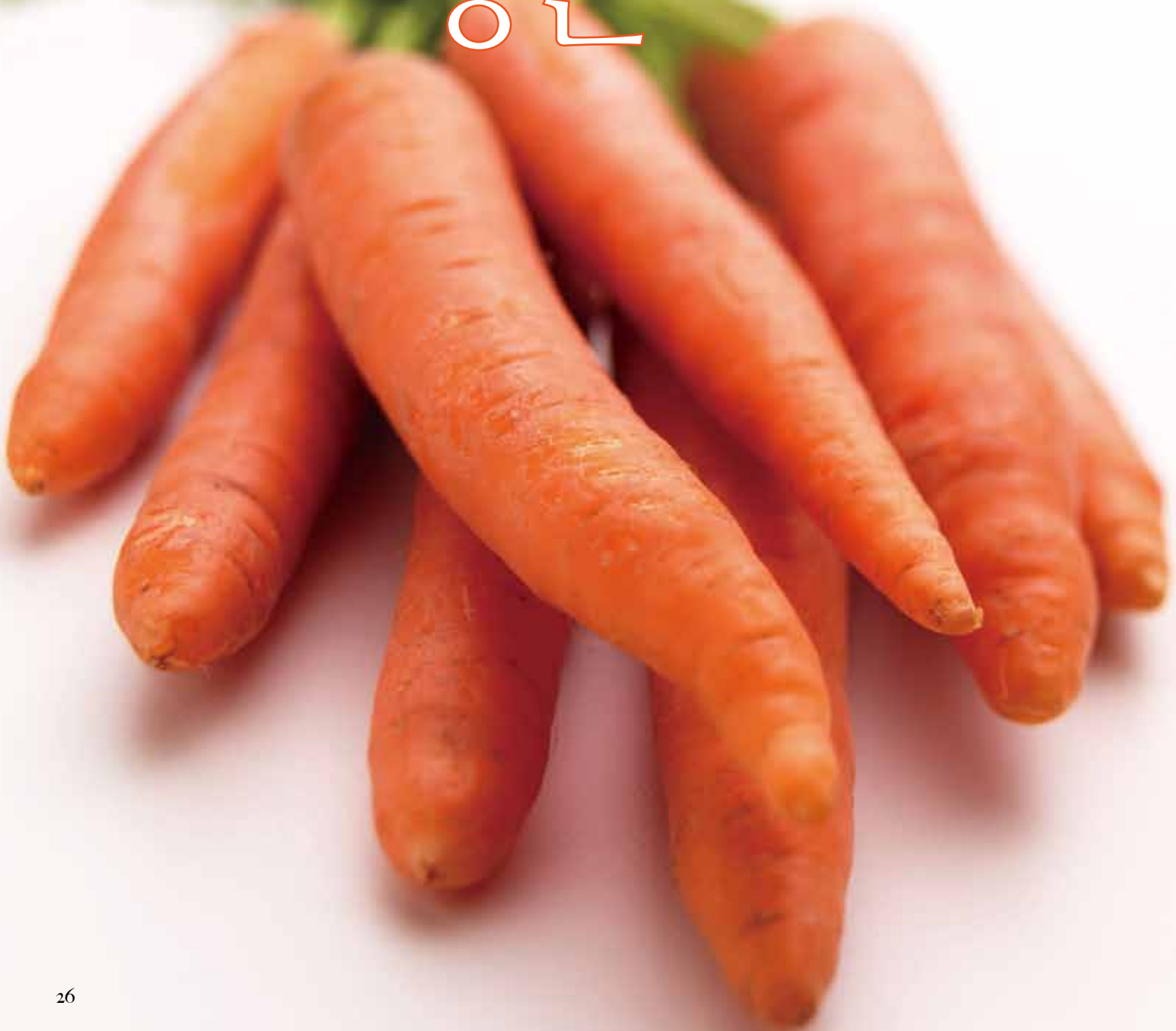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한방
칼럼

당근은 식감을 살려주는 색과 달콤한 맛, 향긋한 향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다. 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채거 먹기도 쉽고 간편하다. 샐러드나 주스 등 생으로 먹어도 달콤하게 맛있고, 익혀서 먹어도 달짝지근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글. 영양팀 신지원 임상영양사

식감을 살려주는 색과 달콤한 맛 **당근**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소 함유

식감을 살려주는 색깔과 달콤한 맛과 향긋한 향으로 나물, 김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빠지지 않는 채소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또한 비타민 B1, B2, C,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이 고루 들어 있는 영양가가 높은 채소이다. 당근의 주황색 빛깔에 들어 있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가장 안전한 급원으로 과량을 섭취해도 주로 체내의 지방조직에 저장되고, 비타민 A 과잉증과 같은 부작용은 없어 비타민 A 보충제로의 섭취 보다는 자연 식품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당근에 많이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눈의 간상세포에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색소인 로돕신을 합성하는데 관여한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안구건조증, 각막연화증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제의 역할로 우리 몸의 유해산소 작용으로 체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으며 알파카로틴까지 가세한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로 인한 암, 동맥경화증, 관절염, 백내장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기름과 함께 요리해야 흡수율 높여

당근을 고를 때는 색이 일정하고 진한 광택을 띠며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 끝이 가늘수록 심이 적고 조직이 연해 맛이 좋다.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위에 많으므로 당근을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잔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닦아 먹는 것이 좋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아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8%에 불과하지만 기름과 같이 섭취하면 60~70%로 높아지므로 기름을 사용한 조리법을 권한다.

당근을 주스로 마실 때는 기름을 몇 방울 첨가하고, 샐러드 등의 날것으로 먹을 때는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당근전

요리재료(4인분) 당근 300g(중간 것 2개), 쇠고기 150g(작은 토막 3조각), 양파 70g(중간 것 1/2개), 풋고추 20g(보통 것 2개), 당근 40g(작은 토막 1조각)

양념 다진 파 1큰 술, 다진 마늘 1/2큰 술, 간장 1큰 술, 소금 1작은 술, 참기름 1/2큰 술, 깨소금 1/2큰 술, 후춧가루 조금

만드는 법

1. 당근은 흐르는 물에 표면을 깨끗이 씻어 0.5cm 두께의 원형으로 썬 후 가운데를 동그랗게 구멍을 낸다.
2. 쇠고기, 양파, 당근, 풋고추를 곱게 다진다.
3. 곱게 다진 쇠고기, 양파, 당근, 풋고추에 양념을 혼합하여 반죽한다.
4. 구멍 낸 당근에 밀가루를 묻히고 3을 채운다.
5.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지진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위에 많으므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이 좋다. 당근은 기름을 사용하면 베타카로틴 성분을 더욱 흡수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된다.



당근 새싹 쇠고기말이

요리재료(4인분) 당근 70g(중간 것 1/2개), 쇠고기 100g(얇게 썬 것), 깻잎 20g(10장), 새싹 채소 100g(반 컵), 식용유 2큰 술, 소금 1작은 술

만드는 법

1. 당근은 흐르는 물에 표면을 깨끗이 씻어 세로로 얇게 썰어 소금에 20분 정도 절여 둔다.
2. 쇠고기는 소금, 후춧가루를 골고루 뿌린 후 밀가루를 묻혀서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3. 절여둔 당근은 물기를 제거하고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살짝 굽는다.
4. 깻잎은 반으로 썬다.
5. 준비한 당근에 깻잎을 깔고 쇠고기를 올린 후 새싹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준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새싹의 루테인 성분은 기름에 녹아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이 좋다.

자연이
담긴
먹을거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동경찰서와 함께 '2014 우리는 한가족' 코너를 진행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 여성 등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 딜야라 씨를 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린 마음씨를 가진 딜야라 씨는 처음 면담하는 날에도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급식봉사를 하고 왔다. 한국에서 받은 배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한다.

글과 사진: 이경호(홍보마케팅실)

딸을 위해 한국말을 독학으로 익힌 딜야라 씨

빵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딜야라 씨는 결혼 전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 살 때 케이크나 우즈벡 전통빵 ‘삼사’를 만들어 이웃과 시장에 파는 일을 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빵을 계속 만들고 싶어도 당장 오븐을 마련할 엄두조차 내질 못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1998년 우즈벡의 한국 식당이었다. 우즈벡 말이 서툰 남편이 식당에서 주문을 못하는 모습을 본 딜야라 씨가 남편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과 딜야라 씨는 둘 다 러시아 말이 능숙해서 금방 대화가 통했다. 요리에 소질이 있던 남편은 식당 사업을 하기 위해 우즈벡으로 왔다. 식당은 처음에는 순탄했지만 뜻하지 않은 환경변화로 결국 부도가 났다. 남편은 딜야라 씨와 딸을 데리고 2009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온 남편은 현재 관광버스 운전을 하는데 한 달 수입이 130만 원 정도여서 세 식구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남편은 지방엘 다녀야해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온다. “종일 시간을 혼자 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딸이 학교에 가면 다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긍정적인 성격의 딜아라 씨지만 한국에 시집 온 금발의 우즈벡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 시선을 견디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남편은 주위의 안 좋은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딜아라 씨에게 일부러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딜아라 씨는 독학으로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다. 딸이 한국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엄마가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딜아라 씨는 이제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엄마의 힘이다.

다문화가족 종합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한국에 살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딜아라 씨는 3년 전부터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종종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픈 통증도 있었다. 심장 뛰는 느낌이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아랫배가 자주 아팠고 머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플 때가 많아서 큰 병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딜아라 씨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종합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

동경희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사전문진을 받고 혈액/혈압 검사, 유방 촬영 등 기본검사와 함께 위내시경, 심장초음파, 자궁초음파, 뇌혈관CT 검사와 같은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소변검사에서 소량의 적혈구와 다수의 백혈구가 검출됐다. 신장 질환이나 요로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신장내과 진료를 안내했다. 부인과 세포진 검사에서는 염증성 변화가 관찰됐다. 차후에 배뇨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했다. 유방 촬영 검사에서는 우측에 석회화된 모습이 보여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함을 알려줬다. 몇 가지 이상소견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는 의사의 말은 그녀의 걱정을 한결 가볍게 해줬다.

딜아라 씨는 빵 만들기를 잘하고 식당사업을 했던 남편은 갈비찜, 닭갈비, 스파게티, 피자 같은 음식을 집에서 곧잘 만든다. 딜아라 씨는 예쁜 식당을 차리고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할 날을 꿈꾼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재능을 발휘할 날이 언젠가 꼭 올 것이라 믿는다.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딜아라 씨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한다.

“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재능을 발휘할 날이 언젠가 꼭 올 것이라 믿는다.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딜아라 씨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한다.

”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Gang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는
서울강동경찰서,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는 한가족’을 후원합니다.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관련 생활 주변의 범죄를 말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딜아라 씨와 남편

우리는
한가족

50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두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돼,

김성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곱 살이 됐을 무렵 허리가 불편하고, 옆구리
쪽에 통증이 느껴졌다. 또 가끔은 가슴이 답답해
아버지를 따라 지역 병원을 다녔다. 병원을
가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져만 갔다.
아버지를 따라 병원을 다니던 그마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끊기고 말았다.

글. 박현우(홍보마케팅실)

사진. 조태양(홍보마케팅실)



결핵성 척추염으로 척추가 굽는 척추 후만증

조정해님은 결핵성 척추염으로 척추가 휘는 척추 후만증 환자다. 그로 인해 척추가 굽으면서 식사를 하거나 불일을 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 굽은 척추가 장기를 누르면서 호흡을 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꼈고, 걸을 때면 갈비뼈와 골반 뼈의 끝부분이 부딪치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그 외에도 하지가 저리거나, 심한 골다공증 증상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 살아온 탓에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건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딸이었다. 하루하루를 진통제로 버티던 어머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딸은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A병원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았다. 40년간 조정해님을 괴롭히던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마

음도 잠시. 하반신 마비 등을 우려해 수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줄기 희망으로 생각했던 수술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모녀는 진료실 앞에서 부둥켜안고 울었다.

절망에 끝에서 희망을 찾아

수술이 거부된 뒤 모녀는 치료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 큰 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어디서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다시 통증이 심한 날이면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세월만큼 의술도 발전 했으리라 생각했다. 큰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때 그 A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채 3분이 됐을까. 하반신마비가 우려돼 수술할 수 없다는 10년 전 상담결과와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번에도 실망스런 답변이었지만 두 모녀는 그때와 같

이 좌절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었기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한 곳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병원은 없었고, 번번이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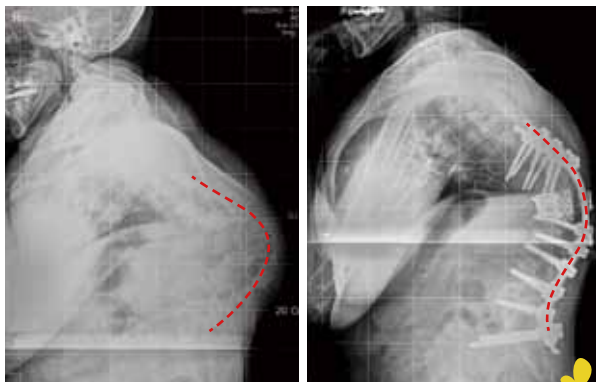
여러 병원에서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들로 희망의 끈을 놓아 갈 때쯤 찾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조정해님 모녀를 맞은 건 신경외과 김성민 교수였다. 조정해님은 어렵게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고난도 수술이었기에 김성민 교수도 수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위험 부담 속에서도 조정해님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 할 수 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상담부터 수술까지 김성민 교수를 비롯해 전광모 PA간호사, 사회사업팀 등의 체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찾은 지 세 달째 되던 2014년 2월, 50여 년간 꿈꿔왔던 수술이 시작됐다.

세월의 무게만큼 어려웠던 대수술 무사히 마쳐

수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 쉽지 않은 척추수술인데다 세월의 무게만큼 앞으로 굽어 버린 척추를 펴는 수술은 순탄치 않았다. 수술이 시작되고 흐른 한 시간 한 시간이 지난 50년의 세월보다 길게 느껴졌다. 긴장과 초초함으로 기다린 12시간. 고난도 수술을 집도한 김성민 교수는 지친모습임에도 두 딸을 찾아와 ‘수술이 잘 됐다’고 안심시키며, 쾌차를 기원했다.

그로부터 9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조정해님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갈비뼈와 골반 뼈가 맞닿아 오던 통증이 사라졌고, 허리가 굽어 어려웠던 보행이 자유로워진 점이다. 조정해님은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을 다니던 어린 시절엔 이 병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마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치료는 멈췄고, 이후 자녀들 양육에 신경 쓰느라 고통과 불편은 잊고 지냈죠”라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여러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를 우려해 수술을 거부했을 땐 희망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성민 교수님의 한마디에 다시 희망이 생겼죠. 김성민 교수님은 고통과 불편으로부터 제 삶을 찾아주신 은인이세요. 내년에 있을 큰 딸의 결혼식에도 제 힘으로 걸어서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해요”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고통 받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
한편 대수술을 집도한 김성민 교수는 “내원 당시 조정해님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굽은 척추를 세워야 하는 어려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수술 경과가 매우 좋아 별도의 재활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서 재활 밴드 등을 이용해 다리에 힘을 기르는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정해님의 상태를 지켜보며 결핵성 척추염으로 고통 받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수술 전

수술 후

치유의
손길

영원한 소녀, 김자옥 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대장암



지난 11월 16일, TV 드라마로
오랜 시간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탤런트
김자옥 씨가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월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해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만해도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기에 더 예상치 못한
비보였다.

김자옥 씨는 2008년(57세)에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로
대장암을 발견했다고 한다.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고 약 4년이 지난 2012년에 흉부에 림프절 전이가 나타났다. 이후
폐에 전이가 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폐 전이와 림프절 전이에
대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대장암이
발병한 지 6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삶을 마감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해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고
한다.

대장은 큰 종양이 생길 때까지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있어도 어지럼증과 빈혈 같은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간혹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배에서 평소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서는 50대부터 대장암 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대장내시경 검사가 아니라 변에 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분변잠혈 검사이기 때문에 대장암 발견 확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진 제공. TVN <꽃보다 누나>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사진 제공.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기검진이다. 특히 대장암 조기발견의 열쇠는 대장내시경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대장암은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암 중에서도 전체에서 남성 2위, 여성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 발생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식생활과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이는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팝콘, 라면, 감자튀김처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며, 채소와 과일, 통곡류, 해조류 등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기검진이다. 특히 대장암 조기발견의 열쇠는 대장내시경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검사를 통해 용종을 빨리 제거하면 대장암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김자옥 씨는 '꽃보다 누나'에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 늘 움츠려 들었고 자신이 없었다."며 항암 치료를 받았던 상황을 털어놓았다. 또 어느 인터뷰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28차례나 받고 완치까지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걱정은 안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에 감사했다는 김자옥 씨. 암 투병 중에도 계속 드라마에 출연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준 고인을 기억하며 대중들이 대장암의 조기발견에 대해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갑수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

전문진료분야 대장내시경, 대장암, 대장용종, 변비, 염증성장 질환, 위내시경, 위암, 식도암

진료시간 오전(월, 수) 오후(화, 목(대장암))

진료상담 및 문의 02) 440-7033



해안선 따라 돌아보는 울릉도 한바퀴

일주도로 따라 돌아보는 울릉도 핫스팟

울릉도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니다. 덕분에 버리고 별려서 찾은 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단 말로만 듣던 울릉도를 가서 보는 데 의의를 두는 이들도 있다. 여행사 단체상품은 저렴한 비용으로, 단독 여행은 원하는 동선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날씨가 배편이며 고려할 것이 많은 울릉도행, 이왕 찾은 김에 꼭 살펴봐야 할 울릉도 일주도로 위의 핫 스팟을 소개한다. 섬여행의 묘미인 해안 드라이브는 보너스다.

글, 사진 제공. 한국관광공사



육지~울릉도~독도를 잇는 관문, 저동·도동·사동항

일단 시작점은 울릉도 입도항인 저동·도동항으로 정했다. 울릉도에서는 내수전에서 출발해 시계방향으로 달려 석포(섬목)까지 달려볼 계획이다. 물론 반대로 움직여도 무방하다. 일출 포인트로 꼽히는 내수전전망대부터 살펴보자. 내수전~석포옛길과 닿는 내수전전망대는 가파른 계단과 오르막길을 15분쯤 걸어야 닿는다. 관절에 가해지는 약간의 무리는 시원하게 펼쳐진 풍광에 눈 녹듯 사라진다. 한눈에 펼쳐지는 저동항과 죽도가 사람들을 반겨준다. 일출 시간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빼놓지 말자.

이제 저동항으로 향한다. 촛대바위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일품인 일출명소다. 해뜨기 전부터 저동항은 밤새 오징어잡이에 나섰던 배들로 들쭉인다. 울릉도 아지매들의 오징어 할복작업은 보고 또 보아도 지겹지 않다. 지척에 자리한 저동활어판매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바닷바람을 쏘이며 맛볼 수 있다. 오징어가 풍어일 때는 마리당 5000원, 귀할 때는 한 접시에 2만원(3마리) 정도에 판매된다. 포장이 아닐 경우 소주 1병을 포함해 9000원 정도 차림비가 든다. 뽕소라, 멍게, 고동을 비롯해 싱싱한 횡감이 가득이다. 얼큰한 매운탕도 애주가들에게 인기가 있다. 저동항여객선터미널은 강원도 강릉을 오고가는 배와 독도행 배가 자리한다. 도동항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이라 배시간은 피하는 편이 낫다.

저동항 촛대바위 옆으로 난 해안길이 도동항까지 이어진다. 눈이 호강하는 해안도로는 남녀노소 무리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다만 구간 일부가 공사중일 경우 한번에 돌아보지 못하고 저동항에서 조금, 도동항에서 조금씩 걸어야 한다. 완주가 가능하다면 어디서 시작해도 무관하다.

목호에서 출발하는 배가 오가는 도동항은 울릉도에서 가장 변화한 공간이다. 숙박시설이며 식당, 편의점과 은행, 피씨방까지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모여있다. 새단장한 도동여객선터미널 뒤로 저동항까지 이어지는 해안산책로가 자리한다. 행남등대에 올라 바라보는 풍광은 놓칠 수 없는 포인트이다. 도동항 주변에 울릉도 별미인 홍합밥과 따개비밥, 오징어내장탕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모여있다. 이쪽 구간을 여행할 때 위의 별미를 맛보는 편이 좋다. 도동항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동항(울릉신항)과 닿는다. 독도를 오가는 배를 비롯해 물을 오가는 여객선들이 들고난다.

아직은 조용한 남양에서 울릉도 개척역사 품은 태하까지

통구미를 지나 남양항에 닿는다. 울릉도 남서쪽에 자리했기 때문일까. 남서일몰전망대를 품고 있다. 남양신항 공사가 한창이다. 여기는 울릉도 별미인 '울릉약소 전문점'들이 모여있다. 따개비칼국수 맛집으로 꼽히는 <태양식당>도 이곳에 자리한다. 식당뿐 아니라 <남양농협>같은 편의시설을 비롯해 <대구민박> 등의 숙박시설도 몇몇 있다. 변화한 도동항이나 저동항이 싫다면 이곳에 숙소를 잡는 것도 괜찮다.

남양에서 울릉도 북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태하로 한달음에 달려간다. 아름답기로 따지면 행남산책로와 더불어 울릉도 해안산책의 쌍두마차로 꼽히는 태하해안길을 품은 태하는 울릉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 땅인 태하는 옛 우산국의 도읍지로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진 이듬해인 1883년 7월, 54명의 개척민이 이곳 태하에 첫발을 디뎠다. 1907년 도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태하는 20년 넘게 울릉도 행정의 중심지였다.





tip. 울릉도 살펴보기

■ 울릉읍권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이 있는 곳. 행남산책로를 비롯해 행남등대(도동등대), 내수전전망대, 봉래폭포, 저동항 그리고 독도박물관과 케이블카 등이 있다.

■ 서면권

울릉도 남서쪽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며 사자바위, 투구봉, 곰바위, 만물상 등 해안가 기암괴석 등을 둘러볼 수 있다.

■ 북면권

힘이 넘치는 울릉도의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다. 노인봉과 송곳산, 그리고 공암(코끼리바위)과 삼선암, 관음도도 그림처럼 펼쳐진다.

울릉도의 야생미를 한눈에, 북면

대중교통으로 울릉도를 여행한다면 천부정류장을 잘 알아둬야 한다. 환승 정류장으로 기억해두면 된다. 울릉도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석포에서 섬목으로 이어지는 길은 가파르고 구불거린다. 안용복기념관 앞은 죽도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이다. 차량으로 안용복기념관까지 갈 수 있다. 기념관에 가기 전, 해안을 따라 현재 해안도로의 가장 끝 지점인 관음도 앞까지 달려보는 것도 괜찮다. 연도교가 놓인 관음도는 울릉도의 새로운 여행지로 뜨고 있다.

관음도 옆으로 일주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석포에서 내수전을 잇는 구간에 포장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이 둘을 잇는 방법은 옛길을 통해 건너 섬목페리를 이용하는 것 뿐이다. 차량으로 내수전까지 돌아가려면 다시 왔던 일주도로를 돌아가거나 섬목페리(054-791-9905)를 이용해야 한다. 단, 겨울철 페리운항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 러일전쟁유적지(석포일출일몰전망대)로 가보자. 석포전망대와 내수전전망대 갈림길에서 석포전망대를 향해 15분 정도 포장도로와 흙길을 걸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는 모두를 볼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다. 사방이 뚫린 바다를 볼 수 있으니 전쟁 중 요새로 유용했을 것이다. 평화롭기만 한 이 바다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참고로, 울릉도에서는 총연장 4.7km의 울릉도 일주도로 터널공사가 한창이다. 관선·천부·저동터널까지 3개의 터널과 전망대가 포함되는 공사는 앞으로 수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완성되기 전 옛 모습을 간직한 울릉도 여행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영상의학과 김상원 교수의 알기 쉬운 초음파 이야기 Ⅲ

심장, 간, 신장, 유방, 갑상선, 혈관, 전립선, 자궁 등 인체의 모든 부분에 이용되는 초음파는 장기의 질병을 진단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등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다양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장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초음파 검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유해성이 없으므로 임산부, 태아, 소아의 질병 진단에 사용되며, 필요시 단기간에 반복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CT나 MRI에 비하여 검사비가 저렴합니다.
3.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조직검사나 고주파 열치료술에 이용됩니다.
4. 혈류의 방향과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5. 검사 중 탐촉자를 눌러 통증이 있는 부위나 장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동이 매우 제한적인 중환자는 기기를 이동하여 중환자실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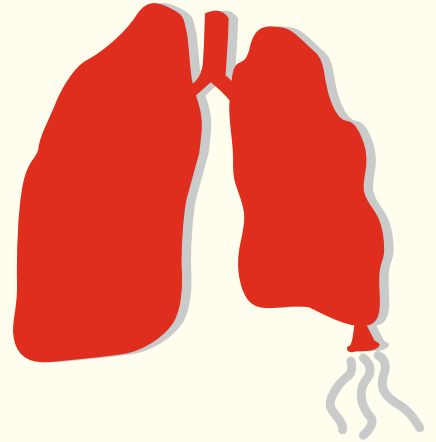
**초음파 검사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검사자의 경험과 검사 장비에 따라서 진단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검사 협조가 어려운 환자 즉, 의식이 없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경우나 피하 지방이 두꺼운 경우 초음파 진단에 제약이 따릅니다.
3. 초음파는 공기나 뼈를 투과하지 못하므로 뼈나 폐, 공기가 차 있는 위장관은 초음파 검사를 제한합니다.
4.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직접 판독이나 진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CT와 MRI와는 달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는 초음파 검사 사진만 보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청소년 기흉클리닉’ 개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은 11월부터 흉부외과에 기흉클리닉을 개설했다. 기흉이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폐기포가 파열되어 가슴 안에 공기가 고이는 질환이다. 기흉이 생기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고, 걸을 때는 호흡곤란이 생긴다. 기흉환자의 86%가 남자이며 남자환자의 과반수이상인 58%가 10대에서 20대 환자로 나타났다. 통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흉이 의심되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흉부X선 촬영으로 기흉을 진단하며 고해상도 CT 촬영으로 폐기포의 크기, 위치를 정확히 판단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기흉클리닉은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흉부외과와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간에 기흉진료 협진체계를 갖췄다. 또한 지역 내 각급 학교에 기흉질환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청소년 기흉클리닉을 운영하는 흉부외과 김대현 교수는 “기흉은 일반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증증도에 따라서 치료가 까다롭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이번에 개설된 클리닉을 통해서 청소년 기흉 진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흉클리닉 상담전화: 02) 440-7051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 국제통합암학회에서 보중익기탕의 ‘암성 피로’ 치료 효과 발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한방암센터)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주관한 ‘국제통합암학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에 참석, 암성

피로에 대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치료 효과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윤성우 교수가 지난 2010년, 통합 종양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지에 게재한 ‘암성 피로에 대한 보중익기탕의 치료 효과(Bojungikki-Tang for Cancer-Related Fatigue: A Pilot Randomized Clinical Trial)’ 연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윤성우 교수는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등의 약제가 들어간 보중익기탕은 한의학에서 기허증(氣虛證)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약으로, 항암치료와 병행했을 때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항암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전통 한의학적 암 치료의 효과를 전

세계의 통합종양학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마시모(Massimo Bonucci) 교수(이탈리아 통합암 치료 연구회장, Association for Integrative Oncology Therapies, ARTOI)는 “보중익기탕에 들어가는 황기는 유럽에서도 많은 암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며 “보중익기탕이 암환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국제통합암학회는 전 세계 300여 명의 통합의학자, 종양학자, 전통의학자들이 모여 근거 중심의 통합 암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학회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건강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피부과 심우영 교수 (대한모발학회 회장)

원형탈모증 환우모임 개최
“원형탈모 스트레스,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어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심우영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모발학회(회장 심우영)는 오는 12월 7일(일) 오후 2시 '원형탈모증 환우모임'을 개최했다.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모발학회 장인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심우영 교수의 △ 인사말 및 원형탈모증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원형탈모증 원인 및 임상적 특징(강훈 교수, 가톨릭의대) △ 원형탈모증 치료(권오상 교수, 서울의대) △ 원형탈모증에 사용되는 가발(최광성 교수, 인하의대) △ 원형탈모증의 오해와 진실(김문범 교수, 부산의대)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원형탈모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심우영 대한모발학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형탈모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과 이를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가 관리법과 치료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호흡기센터, 제6회 폐의 날 기념 건강강좌 개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 호흡기센터는 지난 11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병원 별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제6회 경희 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건강한 숨, 행복한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흡연,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건강관리와 금연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COPD는 담배나 대기오염, 그 외의 물질들에 의해 기도에 장애가 일어나고, 호흡 기능이 천천히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행사는 9시 30분부터 △폐 기능 검사 △영양 상담이 진행되며, 이어 10시 30분부터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의학과 박진경 교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의 건강관리'(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천웅 교수는 “호흡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동시에 또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호흡기질환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만

큼 이번 강좌를 통해 호흡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와 금연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수면시간 감소에 따른

생리지표 변화파악' 임상 지원자 모집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사상체질과는 '수면시간 감소에 따른 생리지표 변화파악' 임상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부-한국연구재단 바이오헬스 8대 중점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인 '한의학 기반, 한국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병(未病)'에 대한 분류체계, 진단기기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이다.

임상실험에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평소 밤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 7~8시간 수면을 취하고, 체질량지수(BMI)가 18.5kg/m² 이상 25kg/m² 미만인 만35세~45세 남녀로 한다. 선착순으로 65명을 모집하며, 연구담당자의 문진(선별검사)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피로, 통증 정도가 높은 사람 및 임신부는 제외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사전방문 1회, 입원 2박 3일, 추후방문 1회로 총 7일간 참여하게 되며, 사전방문 후 4~6주 이내 입원한다.

입원기간 동안에는 수면시간을 하루에 4시간(새벽 1시~5시)으로 제한하여 활력징후, 체표온도, 체형 측정, 대사량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다. 퇴원 시 생체

데이터 수집을 위한 패치를 부착하며, 매일 수면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1회 추가 방문하여 생리지표 변화 측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연구를 위한 모든 검사(대사량, Metria IH1, 체성분, 골밀도, 혈액, 맥파 등 한방 검사)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가 지급된다.

문의: 연구코디네이터 나혜은 간호사

02) 440-6237

문의 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제7회 위풍당당 걷기대회’ 개최

“당뇨, 함께 걸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 내분비대사센터는 오는 11월 29일(토) 오전 8시30분, ‘제7회 위풍당당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별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리는 발대식에서는 △합병증 없이 혈당 조절하기(정인경 교수) △올바른 간식섭취(이혜옥 영양사) △몸 풀어볼까요(레크레이션 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일자산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함께 걸으며 운동을 한 후 혈당측정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접수를 통해 1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3,000원)는 불우환자돕기에 쓰인다.

안규정 내분비대사센터장은 “이번 위풍당당 걷기대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당뇨병 관리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환우들, 한 달 빠른 산타에 선물 받아



지난 11월 20일(목),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20명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 6층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찾았다.

사슴 머리띠를 한 평균연령 79세 산타 할머니들은 복지관에서 직접 포장한 과자, 양말, 캐릭터 스티커 등을 직접 나누어주며 환아와 보호자를 위로했다. 입원 환아들은 한 달 빠른 산타 할머니의 방문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한 어르신은 “사슴처럼 뛰어다녀야 할 아이들이 병실에 누워있는 걸 보니 마음이 찼했다.”며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강동구 지역의 병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유혜경 작가 사진전 바다에 나를 담다

2014년 12월 1일(월) ~ 31일(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본관 1층

갤러리 마음

작가노트

어릴 적 학교 길에서 발견한 아침이슬의 자연을 담은 영롱함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 이제, 그 이슬의 영롱함에 나를 담고자 시작한 사진작업을 위하여 ‘구슬’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구슬은 나에게 이슬이었다. 사진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 구슬 속에 내 나이 칠순을 살며 품어온 나의 작은 마음을 ‘넓은 대해(大海)의 너그러움’으로 채워보고자 한다.

유혜경 작가

이화여자대학교 시각예술학과 졸업했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한국현대사진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갤러리 문의. Grace Park 010-9030-8902
gracejiin@naver.com

정리. 조태양(홍보마케팅실)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님과 7B병동 여러분께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님과 7B병동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 오면서 차재명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뵙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며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퇴원을 하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조르는 면이 있었는데 조금 더 병이 완치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보자는 믿음 있는 말씀에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 말대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늘이 주신 것으로 생각되며 뵈수록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교수님 같은 분으로 가득하시면 더욱 발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7B병동 최정순 파트장님 고맙습니다. 퇴근하는 중에 갑자기 장이 뒤틀리고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이 너무나 생소하고 낯설었으며 처음 입원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응급 처치 후 입원실에 와서 무척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보람, 이윤선, 김보배 간호사님이 사명감을 갖고 초치일관 웃음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병동의 꽃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가 많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병원입니다. 차재명 교수님, 7B병동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그리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선희(전도사) 봉사자 드림



이선희(전도사) 봉사자

“두렵고 힘든 병원 생활을 내 집, 내 가족처럼 만들어 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 직장에서 나의 작은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들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백의 소리’는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병원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를 환자, 보호자, 직원과 나누고자 매월 고백의 소리 중 엄선된 미담사례를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내선번호는 02) 440-△△△△ 입니다.

동서협진센터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진 료 일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중풍· 뇌질환센터 (440-7156) 1층	신경외과	고준석 ★	화	화(신환), 목	뇌졸중(중풍), 급성기 두통, 경동맥내막절제술, 뇌혈관내 중재술(뇌동맥류 코일색전, 스텐트), 뇌내시경 수술(종양/수두종)
		이승환 ★	월, 수, 금		뇌종양(양성 및 악성), 뇌허수체선종,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뇌기저부외과(종양 및 혈관 질환), 외상성 뇌 질환
		신희섭	목	월, 금	뇌졸중(중풍), 뇌혈관 질환(뇌동맥류), 급성기 두통, 외상성 뇌 질환
		일 반	토	수	뇌혈관 질환, 급성기 두통, 외상성 뇌 질환
	신경과	신원철 ★	월, 화, 목, 토(교대)	수, 목(신환/1,3)	뇌전증, 경련성 질환, 뇌졸중예방, 수면 장애(수면무호흡, 불면증, 주간수면과다, 하지불안증후군 등), 실신, 이상운동 질환, 두통
		김상범 ★	수, 금, 토(교대)	월, 수	말초신경 및 근육 질환, 유전성 말초신경 질환, 근무력증, 다발성경화증, 신경병성 통증 질환, 두통, 뇌졸중
		이학영 ★	수, 목(1,3), 금, 토(교대)	월, 화	기억 장애, 치매, 혈관성 치매, 언어 장애, 실어증, 건망증, 치매 예방, 뇌졸중, 파킨슨병, 어지럼증, 두통
		최혜연 ★	월, 화, 목(2,4), 토(교대)	목, 금	뇌졸중, 뇌졸중 예방, 두통, 어지럼증
		정유진	토(교대)	화, 목, 금	수면장애, 경련성질환, 이상운동장애, 두통, 어지러움
		일 반	금	월	두통, 어지럼증, 뇌졸중, 삼차신경통 등 신경과 질환
	한방내과	배형섭 ★	월, 수, 금		중풍예방, 중풍, 두통, 어지럼증,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협심증, 근긴장이상
		고창남 ★	월, 수, 금	화	중풍예방, 중풍, 두통, 어지럼증, 운동실조, 파킨슨병,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심장신경증, 치매, 뇌전증
		박정미 ★	화, 목, 토(4)	월, 목, 금	중풍예방, 중풍, 두통, 어지럼증, 떨림증, 손발저림(시림), 만성통증, 고지혈증, 치매, 동맥경화, 부정맥, 수면 장애
		박성욱 ★	화, 목, 토(2)	월, 수, 금	중풍예방, 중풍, 파킨슨병, 간질, 두통, 어지럼증, 안면경련, 손발저림(시림), 뇌전증, 고혈압, 부정맥
	재활의학과	조승연	월, 목, 토(1,3,5)	화, 수, 금	중풍예방, 중풍, 두통, 어지럼증, 파킨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호흡기질환(감기, 기침, 천식), 만성통증
		유승돈 ★	월, 수	수, 목	뇌졸중, 통증, 언어/인지 재활, 신경근골격 초음파, 손발저림, 삼킴, 치매, 화귀근육 질환, 소아재활, 족부/보조기 클리닉, 체외충격파 치료
		이승아	화, 토(2)	월, 화, 금	뇌졸중, 통증, 언어/인지 재활, 신경근골격 초음파, 손발저림, 삼킴, 치매, 화귀근육 질환, 소아재활, 족부/보조기 클리닉, 체외충격파 치료
		이장복	목, 토(4)		뇌졸중, 통증, 언어/인지 재활, 신경근골격 초음파, 손발저림, 삼킴, 치매, 화귀근육 질환, 족부/보조기 클리닉, 체외충격파 치료
관절· 류마티스센터 (440-7467~8) 1층	정형외과 (7467)	김강일 ★	수	월	무릎(슬관절), 인공관절수술, 관절보존 절골술, 컴퓨터응용 수술, 로봇수술, 다리교정 수술, 하지굴절
		전영수 ★	목, 금	화	고관절 질환, 인공고관절, 표면치환술, 골관절 종양, 연부조직 종양, 전이성 종양, 고관절 외상, 골다공증
		유기형 ★	해외연수(2014.1~2014.12)		인공고관절수술, 고관절 질환 및 굴절, 엉덩이관절, 소아정형외과, 골다공증, 로봇수술
		이재훈 ★	화, 목	목	수부·손목관절·팔꿈치 관절 질환 및 외상, 미세재건술, 족부·외상
		조남수 ★	월	수, 금	어깨 및 팔꿈치 관절(견주관절), 스포츠손상 및 외상, 관절경 및 인공관절수술
		이상학 ★	토(매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수술), 스포츠 손상, 십자인대 및 연골판 손상, 하지외상, 혈우병성관절염, 소아정형외과
		일 반	화, 수, 금	월, 목	일반정형외과
	침구과 (7455)	박동석 ★	화, 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견관절통증, 오십견
		백용현 ★	수, 금, 토	월	어깨통증(오십견), 관절염, 섬유근육통, 강직성척추염, 통풍, 골다공증
		박연철	월, 토(2,4)	월, 수, 금	턱관절이상, 통증 질환(어깨 팔꿈치 무릎 손 발), 통풍, 골다공증, 교통사고 후유증
		김민정	월	화, 목	통증(어깨, 무릎, 손, 발), 염좌(손목, 발목),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교통사고 후유증
	류마티스내과 (7452)	양형인 ★	월, 수, 목	월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 통풍, 퇴행성관절염, 만성관절염, 섬유근통증후군
		이상훈 ★	화, 금, 토(1,3,5)	월, 수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및 자가면역 질환, 통풍 및 퇴행성관절염, 만성관절염
		송 란	월, 목, 토(2,4)	화, 목, 금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섬유근통증후군,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퇴행성관절염, 만성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재활의학과	유승돈 ★	금	통증(어깨, 무릎, 손, 발 등)치료, 관절재활, 신경근골격 초음파, 근전도, 자세교정, 운동교육, 손발저림, 수술 후 재활
척추센터 (440-7482~4) 2층	정형외과	김기택 ★	월, 목	월	척추 질환(외과), 골다공증, 강직성척추염, 척추측만증
		이상훈 ★	수	수, 금	척추 질환(외과), 골다공증
		일 반		수	척추 질환(외과)
	신경외과	김성민 ★	화, 금	화	척추 질환(외과), 골다공증, 말초신경
		조대진 ★	토	목	척추 질환(외과), 골다공증
		김동환 ★	월, 금	월, 화, 수	수술 전후 척추통증, 골다공증, 근전도, 통증물리 치료, 척추손상
	재활의학과	이장복	수	금	수술 전후 척추통증, 골다공증, 근전도, 통증물리 치료, 척추손상
		이봉재 ★	목	목	수술 전후 척추통증, 급성 및 만성 통증 관리
		강종만 ★	화		수술 전후 척추통증, 급성 및 만성 통증 관리
	마취통증 의학과	강종만 ★	화		수술 전후 척추통증, 급성 및 만성 통증 관리
	한방재활의학과	조재홍	화, 목, 금, 토(2,4)	수, 목	추나 요법, 척추통증, 교통사고 증후군
	침구과	서병관	월, 수, 토(1,3,5)	월, 화, 금	척추통증, 봉독 요법, 교통사고증후군, 척추관협착증
건강증진센터 (440-6000) 4층	양방검진 및 판정	내과		월~금	건강검진 결과 상담(내과 전문의), 유전체 상담(정종구)
	검진 및 판정	검진 및 판정	월~금, 토(토요일검진은 센터로 문의)		정종구(영상의학), 김이혜(영상의학), 김교남(영상의학), 박종욱(소화기), 김민경(소화기), 백관미(소화기), 김소라(산부인과)
	한방검진	한방검진	월~금, 토(토요일검진은 센터로 문의)		박영재(월), 권수영(화, 수, 목, 금, 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진 료 일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치과 (440-7500) 4층 *영유아 구강검진은 사전예약필요 (440-7000)	치주과 (7515)	박준봉 ★	월, 화, 금, 토(3)	월, 수, 금	일반치주 치료, 치주성형술, 치과임플란트, 치조골재생분야, 고령자치과분야
		강경리 ★	월, 수, 목, 금, 토(1,5)	월, 화, 수	일반치주 치료, 치주성형술, 치과임플란트, 치조골재생분야, 고령자치과분야
		홍지연	월~목, 토(2,4)	화, 수, 목, 금	일반치주 치료, 치주성형술, 치과임플란트, 치조골재생분야, 고령자치과분야
	구강외과 (7517)	류동목 ★	화, 수, 목, 금, 토(5)	월, 화, 금	구강암 및 악안면재건수술, 턱교정수술 및 안면윤곽수술, 치과임플란트수술
		지유진 ★	월, 화, 수, 금, 토(1,3)	화, 수, 금	구강암 및 악안면재건수술, 턱교정 수술, 치과임플란트 수술
		이덕원 ★	월, 수, 목, 금, 토(2,4)	월, 수, 목	치과임플란트수술, 턱교정수술 및 안면윤곽수술, 턱관절 장애, 턱악굴외상 및 재건수술
	보철과 (7519)	이상복 ★	월, 수, 목, 금, 토(5)	월, 수, 목	턱관절 기능 및 교합 장애, 치과임플란트, 심미보철, 스포츠 치의학
		이석원 ★	월~금, 토(3,5)	월, 화, 수, 목, 금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가철성 의치보철
		안수진	월~금, 토(2,4)	월, 목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가철성 의치보철
		박수정	화, 수, 금, 토(1,3)	월, 화, 수, 금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가철성 의치보철
	교정과 (7511)	강윤구 ★	월, 수, 목, 토(2,4)	월, 화, 수, 금	성인교정, 투명교정, 급속교정, 악안면기형교정, 턱관절교정
		미수정	월, 화, 목, 금, 토(1,3)	월, 목, 금	성인교정, 수술교정, 설측교정
	보존과 (7513)	박상혁 ★	화, 수, 목, 금, 토(1,3)	월, 화, 목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레진, 미세현미경수술
		장지철	단기연수(2014.10~2014.11)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레진, 미세현미경수술
	소아치과 (7506)	김광현 ★	월, 수, 금, 토(3,4)	월, 화, 수, 금	수복 치료, 치아외상, 진정 치료, 소아교정, 장애인치과
		이은영	월, 화, 목, 금, 토(1,2)	월, 화, 목, 금	수복 치료, 치아외상, 진정 치료, 소아교정, 장애인치과
		일 반	월~토	월~금	일반 소아치과진료

치과대학병원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진 료 일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심장혈관센터 (440-7685~6) 2층	심장혈관내과	김중진 ★	월, 수	목	심근경색증, 협심증, 동맥경화, 고혈압	
		조진만 ★	화, 수	월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	
		손일석 ★	목	월, 화(신환), 수	심장판막 질환, 심부전, 성인선천성심장 질환	
		박창범 ★	월, 토(교대)	수, 금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	
		진은선 ★	목, 금, 토(교대)	화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혈관 질환	
		황희정	화, 금, 토(교대)	목	심장판막 질환, 심부전, 고혈압	
	흉부외과	곽영태 ★		화	관상동맥수술, 심장판막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조상호	화, 금		관상동맥수술, 심장판막외과, 선천성심장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혈관외과	박호철 ★	수		말초혈관 질환, 이식외과	
		조진현 ★	목	월	하지정맥류, 동맥류수술, 경동맥내막절제술, 당뇨발 말초혈관 인터벤션	
호흡기센터 (440-7051) 1층	호흡기내과	유지홍 ★	화		만성폐쇄성폐 질환, 기관지천식, 만성기침, 폐암, 간질성 폐 질환	
		최천웅 ★	월, 금	목	기관지천식, 폐결핵, 폐암, 만성폐쇄성폐 질환, 중환자 치료	
		김이형 ★	수, 목, 토(5)	월	결핵 및 항산균폐 질환, 만성폐쇄성폐 질환, 기관지천식, 간질성폐 질환, 폐렴	
		장복순	목, 토(1,3)	화, 금	폐암, 결핵 및 항산균폐 질환, 기관지초음파내시경, 만성폐쇄성폐 질환, 기관지천식	
		박소희	토(2,4)	수	만성폐쇄성폐 질환, 천식, 폐렴, 결핵, 중환자 치료	
		곽영태 ★		금	폐외과, 식도외과, 흉강경외과, 일반흉부외과, 다한증	
	흉부외과	박주철 ★		화	폐외과, 식도외과, 흉강경외과, 일반흉부외과, 다한증	
		김대현 ★	화, 금		폐외과, 식도외과, 흉강경외과, 일반 흉부외과, 다한증	
		내분비내과	정호연 ★	월, 수, 목	화	골다공증, 갱년기 질환,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질환
			안규정 ★	화, 목, 금	수	당뇨병, 갑상선, 비만, 뇌하수체, 부신
정인경 ★	월, 수, 토(1,3)		월, 목	당뇨병, 갑상선, 비만, 뇌하수체, 부신		
황유철 ★	해외연수(2014.7 ~ 2015.6)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조인진	화, 금, 토(2,4,5)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외과	송정윤 ★			수	갑상선암, 부갑상선, 부신 질환	
	한상아		목	갑상선암, 유방암		
신장센터 (440-7064) 1층	신장내과	이상호 ★	월, 화, 목	월	신이식,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신장염	
		문주영 ★	화, 수, 금, 토(1)	수	사구체 신장염, 당뇨병성 신증, 투석	
		김양균	월, 수, 토(2,3,4,5)	화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투석	
		김세연		목, 금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투석	
		소화기센터 (440-7033~4) 1층	소화기내과	이정일 ★	월, 목	화
주광로 ★	화, 금			화	담석증, 담도 및 췌장 질환, 소화기내시경(위, 대장, 췌장), 위장관 질환	
백일현 ★	화, 목			수, 금	위암, 식도암, 위궤양, 식도염, 대장암, 대장용종, 변비, 염증성 장 질환	
차재명 ★	월, 수			화, 목(대장암)	대장내시경, 대장암, 대장용종, 변비, 염증성장 질환, 위내시경, 위암, 식도암	
신현필 ★	화, 수			월, 목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 소화기내시경	
전정원	월, 금, 토(2,4)			수, 목	위암의 내시경적 치료, 위염, 위궤양, 궤담관 질환, 대장내시경, 대장용종, 위장관 질환	
임준욱	수, 목, 토(1,3,5)			월, 금	담도 및 췌장 질환, 위 · 대장 질환, 위장관종양, 치료내시경	
채명준				수	소화기 질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배준호				금	소화기질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오유미				월	소화기질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외과 (440-7033~4) 1층	소화기외과	이석환 ★	목	화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대장수술	
		주선형 ★	화, 금		간암,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간이식, 신장이식, 복강경 수술	
		최성일 ★	해외연수(2014.11~2015.10)		위암, 대장암, 복강경수술, 탈장, 치질	
		김범수 ★	월	수	간담도, 담석, 췌장 질환, 간이식, 신장이식, 복강경 수술	
		한민수		금	외과 질환, 복강경수술	
		김찬동		목	외과 질환, 복강경수술, 대장항문질환	
		김상현	수	월	외과 질환, 복강경수술	
		일 반	수, 목	월, 화	외과 질환	
	여성외과	송정윤 ★	월, 수		유방암, 갑상선암	
		한상아	화, 금		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의학센터 (440-7111~2) 1층	산부인과	이선경 ★	월, 목	화	부인종양, 질확대경 · 레이저, 부인과내시경	
		유은희 ★	월, 화, 금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부인과 양성종양, 복강경수술, 갱년기 · 골다공증	
		이종민 ★	수	월, 목	부인종양(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체부암), 재발암 및 난치성암	
		설현주 ★	수, 목, 토(교대)	월	산과, 산전관리, 태아정밀초음파, 고위험임신, 일반부인과	
		기경도 ★	화, 금, 토(교대)	수	부인과 복강경 수술, 부인종양, 양성종양(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갱년기 골다공증	
		홍혜리	토(교대)	화, 목, 금	산과, 산전관리, 태아정밀초음파, 일반부인과	
		일 반	월~금	월, 수	일반부인과	
		혈액종양내과(440-7280) 1층	내과	여원규 ★	월, 수, 금	수
이하연	화, 목			월, 화, 금	폐암, 육종, 유방암, 두경부암, 비뇨기종양	
방사선종양학과(7400) 지하1층	장혜정		월, 금	월, 수, 목	식도암, 간담도암, 위암, 대장암, 여성암, 뇌암, 빈혈, 혈액암 (※진료는 1층 다학제 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정원규		월, 화, 수, 금	월	악성 종양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 회전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brain, head & neck, lung, breast, cervix, prostate)	
	박문서 ★		월, 수	수	난청, 이명, 중이염, 보청기, 안면신경마비, 편도 질환(편도수술)	
	변재웅 ★		목, 금, 토(5)	월, 목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인공외우), 소아이비인후과, 안면신경마비, 편도 질환(편도수술)	
	이건희 ★		화, 수	수	코성형, 알레르기비염, 축농증, 코골이,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질환(편도수술)	
	이영찬		월, 토(2)	화,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 질환, 구강 질환, 음성 장애, 비파 질환, 편도 질환(편도수술)	
	정지현		금, 토(1,3)	월, 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코골이,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질환(편도수술)	
	일 반		화, 목, 토(매주)	목, 금	이비인후 질환, 편도 질환(편도수술)	
비뇨기과 (440-7735~6) 6층	내과	이형래 ★	월, 목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여성요실금, 남 · 여성배뇨 장애, 비뇨기종양학, 남 · 여성기능 장애, 불임, 남성갱년기	
		민경은 ★	화, 금, 토(5)	목	비뇨기복강경수술, 비뇨기 종양, 비뇨기 손상, 요로 결석	
		유규환	수, 토(1)	월, 금	비뇨기복강경수술, 비뇨기 손상, 신우신염, 요로결석	
		이동기	금, 토(3)	화, 수	소아비뇨기 질환, 배뇨 장애, 요로결석, 남성 질환	
		일 반	토(2,4)		비뇨기계 질환	

→ 진료시간의 ★ 표시는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입니다.

→ 토요일 진료 숫자는 해당 센터(과)의 주간 진료 순서를 뜻합니다.(1,3 - 첫째, 셋째 토요일)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진 료 일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소아청소년과 (440-7173~4) 1층 *토요일은 당일접수 불가 (예방접종 제외) *영유아 검진은 사전예약 필요 (440-7000)		배중우 ★	월, 수, 금	화	신생아 질환, 미숙아관리, 신생아 집중 치료, 유전 질환	
		심계식 ★	화, 수	월, 목	성장·발달클리닉(저신장, 발달지연), 소아내분비 질환, 소아대사성 질환, 소아신경 질환	
		윤경림 ★	월, 목	수, 금	소아심장병(선천성 심장병, 가외사끼병), 흉통, 태아심초음파, 부정맥, 소아감염 질환	
		박영실 ★	화(2,4), 수, 금	월, 화	소아혈액 질환(빈혈, 혈소판감소증), 소아암, 소아백혈병, 혈우병	
		최선희	화, 목, 토(2,4)	수, 금	알레르기 및 호흡기(천식 및 비염, 아토피)	
		정성훈	화(1,3,5), 토(1,3,5)	월, 목	신생아 질환, 미숙아관리, 신생아 집중 치료	
		강병호	월, 금, 토	수	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질환, 소아당뇨, 소아비만	
		일 반	수	화	소아 일반진료	
		일반의(독감전중)	목, 토	화, 목, 금	소아 독감전중	
	일반의(접종)	목, 토	화, 목, 금	소아 예방접종		
안과 (440-7760) 6층	녹내장 클리닉	강자현 ★	월, 목	화	녹내장, 백내장, 기타안 질환	
	망막 클리닉	문상웅 ★	해외연수(2014.3~2015.2)		망막 유리체, 황반 질환, 백내장, 포도막염	
		서경훈	수, 금		망막 유리체, 황반 질환, 백내장, 포도막염	
	소아안과 & 사시 클리닉	신재호	화, 토(1~4)	월, 목, 금	안성형, 눈물길, 안와, 사시, 소아안과	
		이 평		수	백내장, 각막 및 외안부 질환	
	일 반	화, 수, 목,	화, 목	일반안과 질환		
피부과 (440-7329~30) 2층		심우영 ★	목, 금, 토(2,4)	월, 화	모발 질환, 조갑 질환	
		유박린 ★	월, 화, 토(1,3,5)	수, 금	아토피피부염, 탈모, 피부 종양, 피부미용외과 및 레이저, 흉터 및 켈로이드, 여드름	
		일 반	수	목	일반피부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440-7094) 2층		조아람 ★	해외연수(2014.9~2015.8)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매, 우울증, 수면 장애, 스트레스성 질환	
		박진경	수, 목, 토(3,5)	월, 목, 금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김 태	월, 화, 금, 토(2,4)	화, 수	불면증,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질환, 치매, 건망증	
중앙감염관리센터 1층 감염내과(7051)		손준성 ★	수, 목	월	감염성 질환, 원인불명열, 패혈증, 해외여행상담	
		문수연	월	수, 목, 금	감염성 질환, 원인불명열, 패혈증, 해외여행상담	
핵의학과 (6901) 지하 1층		양유정	수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영상의학과 (6954) 2층		이선정		목	갑상선고주파 치료클리닉	
수면센터	신경과 1층(7160)	신원철 ★	월, 화, 목	수, 목(신환/1,3)	코골이, 수면 장애(수면무호흡, 불면증, 주간수면과다, 하지불안증후군 등)	
	이비인후과 2층(7321)	이건희 ★	화	수	코골이, 수면무호흡	
건강보험심사평가원(440-7800) 지하1층			월~토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5대 암검진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진 료 일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한양암센터 (440-7279) 2층	사상체질과	이수경 ★	월, 화, 목, 금	월, 목	전이암, 진행암, 한양방협진(재발방지, 항암치료 부작용), 암증상완화	
		정의홍	월~금, 토(2,4)	월, 화, 목	전이암, 진행암, 한양방협진(재발방지, 항암치료 부작용), 암증상완화	
	한방내과	윤성우 ★	월, 수, 금	월, 수, 금	전이암, 진행암, 한양방협진(재발방지, 항암치료 부작용), 암증상완화	
	한방부인과	이진우 ★	수	화	한양방협진(유방암, 여성암의 수술 후 보양, 항암치료 부작용), 암증상완화(유방암, 여성암의 피로, 통증)	
	침구과	박연철	화, 금		암증상완화(암성통증, 말초신경증후군, 암환자 근골격계질환)	
안면마비센터 (440-7141~2) 1층	침구과	박동석 ★	수, 금, 토(2,4)	월	안면신경마비, 안면경련, 안면통(삼차신경통), 기타 안면 질환, 기타 말초신경계 마비 질환	
		백웅현 ★	월, 토	수, 목	안면신경마비, 안면경련, 안면통(삼차신경통), 기타 안면 질환, 기타 말초신경계 마비 질환	
		박연철	목	화	안면신경마비, 안면경련, 안면통(삼차신경통), 기타 안면 질환, 기타 말초신경계 마비 질환	
		김민정	화, 토(1,3,5)	금	안면신경마비, 안면경련, 안면통(삼차신경통), 기타 안면 질환, 안면부종	
화병/스트레스클리닉 (440-7141~2) 1층	한방 신경정신과	김종우 ★	화, 목, 금	월, 목	화병, 스트레스성 질환, 우울증, 수면 장애	
		정선웅	월, 수, 토	화, 수, 금	틱,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치매, 중독(흡연, 음주, 약물과다)	
체질개선클리닉 (440-7141~2) 1층	사상체질과	황민우 ★	월, 화, 목, 금, 토(1,3)	월, 목	면역질환, 과민체질, 냉증/열증, 체질보양, 생활습관병(성인병)관리, 다한증, 부종	
	사상체질판정실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사상체질진단 Solution(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판정)	
한방여성건강 클리닉 (440-7141~2) 1층	한방부인과	이진우 ★	화, 금, 토(1,3)	월, 목	생리불순, 갱년기 장애, 불임, 산후풍, 수축냉증	
		박경선	월, 수, 목, 토(2,4,5)	화, 수, 금	생리불순, 갱년기 장애, 불임, 산후풍, 수축냉증	
한방건강증진클리닉 (440-7227~8) 2층	침구과	박영재	토	월, 수	한방건강평가, 한방건강관리, 아견강관리, 한방항노화	
소아청소년클리닉 (440-7141~2) 1층	한방소아과	장규태 ★	화, 수, 토(2,4)	월, 수, 금	허약체질, 성장 및 발달 장애, 성조숙, 경기, 경련	
		이선형	월, 목, 금, 토(1,3,5)	월, 화, 목, 금	식욕부진, 복통, 기침, 천식, 알레르기 질환, 수면 장애, 학생건강증진	
		일 반	화, 수, 목	화, 수, 목	소아 제반 질환	
한방소화기/보양클리닉 (440-7141~2) 1층	한방내과	박재우 ★	해외연수(2014.7~2015.7)		소화기 질환, 피로, 보양, 구취 및 구강 질환, 대장포진, 면역, 내분비계 질환	
		고석재	월, 화, 수, 금, 토(매주)	수, 목, 금	소화기계 질환, 만성피로, 면역, 보양, 구취 및 구강 질환, 만성변비, 대장포진, 내분비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전립선 질환, 만성기침, 급주	
		일 반	목	월, 화	소화기 질환, 만성피로, 면역, 보양	
알레르기/ 피부미용클리닉 (440-7141~2)	한방 안면마비인후 피부과 1,2층	최인화 ★	화, 금, 토(2,3)	월, 수, 금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건선, 주무늬진	
		윤영희	월, 수, 목, 토(1,2,4)	화, 목, 금	여드름, 탈모, 아토피피부염, 건선, 주사, 두드러기, 알레르기 피부질환, 한방피부미용성형(미용침, 매선요법), 안면성형수술후관리	
		일 반	월, 수, 목, 금	화, 목	여드름, 얼굴미용침, 피부 질환	
		최인화 ★	화, 금, 토(2,3)	월, 수, 금	비염, 축농증, 이명, 어지럼증, 근시, 안구건조증, 녹내장, 망막 질환	
		이규진	월, 수, 목, 금, 토(2,4,5)	월, 화, 목	알레르기비염, 급만성비염, 부비동염, 급만성편도염, 만성중이염, 이명, 난청, 어지럼증, 안구건조증, 마비성사시, 혀 질환, 구내염	
한방안면마비인후 클리닉 (440-7319)		윤영희	토(1,2,4)	월, 화, 목	알레르기비염, 급만성비염, 부비동염, 만성중이염, 이명, 난청	
		일 반	월, 수, 목, 금	화, 목	안구건조증, 마비성사비, 혀 질환, 구내염, 알레르기 질환	
웰니스센터 (440-7575) 4층	한방비만체형클리닉	송미연 ★	월, 수, 금, 토(2,4)	수, 금	비만, 부분비만, 체형, 절식(해독)	
		김고운	화, 목, 금, 토(1,3,5)	월, 화, 목	부분비만(매선 요법), 소아비만, 산후비만	
	한방재활클리닉	송미연 ★	월, 수, 금, 토(2,4)	수, 금	만성통증, 체형	
		김고운	화, 목, 금, 토(1,3,5)	월, 화, 목	체형(원다리, 굽은등, 거북목), 추나 요법(만성통증, 턱관절, 안면비대칭)	
	미음건강 클리닉	김중우 ★	목, 토(2,4)	화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정선웅	금, 토(1,3,5)	월, 수	두뇌항상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 해외연수 및 학회 참가 등으로 진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각 진료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예약은 02) 440-7000 입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4회 연속 최우수등급 병원 선정

‘2014 급성기 뇌졸중 평가’ 최고 등급인 1등급

-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 진료 A등급
- 1시간 이내 뇌영상 검사 실시율
- 조기재활 평가율
- 60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 48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율
-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등

**과정지표 10개
전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록**



강동경희대학교병원